

#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이 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스트레스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 Effect of the Traumatic Experiences on Drinking among Alcoholics -Mediating role of Stress Coping

우재희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ea-Hee Woo(jhwoo@cup.ac.kr)

### 요약

본 연구는 외상경험이 있는 알코올중독자들의 외상경험과 음주기대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두 변수 간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대처방식의 매개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연령, 최종학력, 단주경험, 단주모임참여, 병식인지가 통제된 상황에서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이 음주기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스트레스대처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변수의 경로는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대처방식이 낮았고( $\beta = -.328, p < .001$ ), 스트레스대처방식이 높을수록 음주기대가 낮았으며( $\beta = -.532, p < .001$ ), 외상경험이 높을수록 음주기대가 높은 것( $\beta = .408, p < .001$ )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음주에 대한 기대가 높고( $\beta = .153, p < .01$ ), 단주경험이 많을수록 음주기대가 낮았다( $\beta = .156, p < .05$ ). 스트레스대처방식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외상경험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거쳐 음주기대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알코올중독자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 방안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알코올중독자 | 외상경험 | 음주기대 | 스트레스대처방식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o test the role of stress coping skills as mediators in the traumatic experiences and drinking anticipation among alcoholics. Subject in this study consisted of 220 alcoholics who aged 18 years and over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tested by AMOS 18.0.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raumatic experiences - drinking anticipation( $\beta = .408, p < .001$ ), traumatic experiences - stress coping skills( $\beta = -.328, p < .001$ ) and stress coping skills - drinking anticipation( $\beta = -.532, p < .001$ ) of alcoholics did show the direct relationship. Second, stress coping skills worked as mediators between traumatic experiences and drinking anticipat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proposed.

■ keyword : | Alcoholics | Traumatic Experiences | Drinking Anticipation | Stress Coping Skills |

## I. 서론

국내 알코올 중독자 수는 약 180만 명(인구의 5.6%)으로 추정되고 있다[1]. 약 600만 명이 술로 인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나라 고 위험 음주율은 14.9%로서 전 세계 평균 11.5% 보다 약 3% 높게 나타나고 있다[2]. 알코올중독자들이 음주를 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다양한 원인 중 알코올중독자들은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적절히 하지 못해 해결방법으로 음주를 선택한다[3]. 즉, 알코올중독자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식이 부족하여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가지게 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많이 음주하게 된다[4]. 음주행위에 있어 개인이 갖는 음주기대는 음주를 통해 개인이 추구하는 특정한 효과의 획득으로, 선행적 학습에 의해 개인이 음주에 대한 소비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를 강화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5].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부족한 알코올중독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알코올중독이 중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연결고리가 된다. 알코올문제 재발의 70%가 문제 상황, 즉 스트레스 상황과 70%정도 상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6]. 즉, 음주행위에 있어 특정 상황의 대처를 위한 음주는 음주문제와 매우 관련이 높다[1]. 이것은 음주에 대한 인지적 기대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음주가 스트레스원에 대한 회피적 반응이기 때문이다[7]. 다시 말해 음주는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기 위한 스트레스 대처방안인 것이다. 알코올중독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인지적 혹은 행동적 대처 자원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처 수단으로 음주를 선택하게 된다[8]. 특히 알코올중독자는 외상경험을 많이 한다는 보고가 있고, 외상경험과 음주문제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9]. 외상을 경험하고 난 이후 외상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하는가 즉,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라 외상경험 이후의 결과가 달라진다[2]. 알코올중독자의 경우 외상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 상태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음주욕구를 강화시키게 된다[4].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각할수록 알코올 사용 장애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사람 중 23%가 물질 남용의 문제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스트레스대처 양식은 그 형태에 따라 외상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완충작용 또는 역 완충 작용을 한다[12]. 외상적 스트레스 사건, 역경 등과 같은 다양한 위험요인들로 인한 심리적 장애는 위험요인들의 부정적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중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3]. 스트레스 대처양식이란 자신의 자원을 넘어서거나 부담으로 평가되는 요구, 해롭거나 위협적이거나 도전이 되는 조건을 해결하기 위한개인의 노력이라고 정의된다[14].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있어 자신에게 가해지는 위해 적이거나 위협 적이거나 도전적인 환경에 대해 직접 수정을 가할 수 있다고 평가할 때는 일반적으로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을 사용하지만, 직접 수정을 가할 수 없다고 평가할 때는 정서중심적인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5].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유형으로 문제해결 대처방식은 기능적이지만 대처방식 전략을 회피하는 것은 역기능적이라고 밝히고 있다[16]. 또한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지만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하여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을 정서중심적 대처양식보다 더 기능적으로 간주한다[17].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외상경험을 한 알코올중독자들에게 있어 스트레스대처방식은 회피적 대처방식으로 작용하여 음주를 부추기는 매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외상경험을 한 알코올중독자들이 음주기대를 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즉, 스트레스대처가 어떠한 매개 효과로 작용되는 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외상경험과 음주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알코올중독자 대상이 아닌 그 외의 대상자에 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소방공무원 중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이 25.4%, 음주사용 장애군 23.7%로 나타난 연구[18], 구제역 방역에 참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 집단에서 음주량과 음주횟수, 폭음횟수가 높게 나타난 연구[19], 직장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20]이다. 특히,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외상경험과 음주기대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더욱 미비한 실정이다. 여성알코올중독자의 신체적, 성적학대 외상경험의 재발위험성의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음주기대를 살펴보고 있는 연구가 있다[21]. 알코올중독자의 스트레스대처와 음주기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으며, 특히 알코올중독자들 다수가 경험하고 있는 외상경험과 관련하여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 여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를 바탕으로 음주기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가설

알코올중독자의 문제중심적 대처는 외상경험과 음주기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음주기대는 음주효과에 대한 매우 주관적인 신념으로 오랜 기억의 한 부분으로 보여 지거나 현재 상황의 흐름에 대한 사고를 내포하고 있다[22]. 음주기대는 음주를 하게 됨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21]. 음주의 긍정적 기대의 개념은 음주를 통해 사교성이나 신뢰감 같은 긍정적 결과를 얻거나 더욱 강하게 하지만 고통이나 피로움은 줄여준다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 기대는 판단이나 인지적 능력의 손상과 같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신념이다[5]. 긍정적 기대는 알코올 소비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부정적 기대는 알코올 소비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23]. 이와 관련된 이론으로 알코올중독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에 의해 발생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하는 긴장완화(tension-reduction) 가설이 있다[24]. 따라서, 알코올중독자들은 음주의 효과에 대한 인지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즉, 음주에 대한 기대를 긴장 완화, 부정적인 정서 상태 및 회피적 태도를 포함한 대처가 선행요인이 된다[25]. 이처럼 부정적 정서

를 감소시키거나 조절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을 스트레스 대처로서의 음주라고 한다[24]. 대처는 개인의 자원을 초과하여 부담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특정한 외적 혹은 내적 요구를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으로 정의한다[26]. 대처방식은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개인이 문제되는 행동이나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문제 중심 대처, 사회적 지지구 대처를 포괄하는 적극적 대처, 자기비난, 부정, 거리두기 등 스트레스 원인을 회피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정서 상태를 통제하려는 정서완화대처, 소망적 사고대처 등의 소극적 대처 등이 있다[27].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처방식이 사용된다. Lazarus(1969)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하나는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대상에 대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다[28]. 이 방법은 위협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것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의식적인 과정인 방어기제에 의한 대응과정으로 자신의 자아개념과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목적 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다[29]. 즉, 문제 중심적 대처 전략들은 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대안적 해결책을 찾고 이들을 저울질 해보고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포함하며, 정서적 대처에는 회피, 거리두기, 긍정적 해석과 같은 인지적 전략이 포함된다. 이처럼 회피와 같은 역기능적 대처양식 또한 정서중심 대처 전략의 개념에 포함된다[30]. 외상이란 원래 외부로부터의 상처를 의미하지만, 이상심리, 정신병리학에서는 정신적 의미의 상처를 의미한다[31]. 즉,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성폭행 등과 같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손상, 위협을 주는 극심한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의미한다[32]. 외상은 그 경험이 개인 관계적이고 반복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다면적이고 가학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행될 때, 아동기에 발생했을 때, 애착관계 내에서 일어났을 때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33]. 외상 경험 이후 스트레스 관련 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편차확장

모형이 제시되었는데, 외상 사건이 일어나고 그에 대해 긍정적 대처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선순환이 확장되어 개인에게 외상 후 성장과 같은 긍정적 결과가 초래되고, 부정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악순환이 증폭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만성적 질병, 우울, 약물중독 등의 부적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34][38]. 따라서, 외상경험 이후 스트레스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응과 부적응적인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는 중요한 매개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외상경험 이후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azarus and Folkman(1984)는 대처양식이 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요인이라고 했다[35]. 이옥정(2010)은 외상경험 후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요인으로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했다[12]. 외상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소극적 대처가 유의미한 관계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36]. 안무옥(2007)의 연구에서는 대처방식의 회피대처가 외상경험과의 관계에서 매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37].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외상경험에서 스트레스대처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현재까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스트레스대처가 외상경험과 음주기대를 매개한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상경험과 음주기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 진단을 받은 만 18세 이상의 남, 여 알코올중독자 각각 110명, 총 2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알코올중독자는 서울 및 경인지역의 알코올중독 병원에 입원중인 대상으로 하였고, 금단증상이 없는 자를 선별하여 설문에 참여시켰다.

####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 진단을 받은 남, 여 알코올중

독자를 대상으로 비확률 표집인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서울, 경인 각각 5개구, 6개시 지역에 소재한 알코올중독병원에 있는 남성알코올중독자 127부, 여성알코올중독자 120부, 총 247부를 설문하여 남, 여 각각 110부를 통계자료로 활용하였다.

### 3. 변수와 측정도구

#### 3.1 외상경험

외상 경험 척도는 한은미(2010)가 여성 알코올중독자의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 한 척도에서 신체적, 성격학대 외상경험 문항(1, 3, 4, 5, 7번 문항으로 총 5문항) 만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23].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637이다.

#### 3.2 스트레스대처방식

스트레스대처방식 척도는 Folkman and Lazarus(1980)가 개발한 대처 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사용하였다[25]. 본 연구에서는 Folkman and Lazarus(1980)가 개발한 69개 문항의 대처 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조성은(2005) 연구에서 문제 중심 대처(29문항)와 정서 중심적 대처(15문항)에 해당하는 44문항을 사용한 것을 근거로 하였다[25][26].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28이다.

#### 3.3 음주기대

음주기대척도는 Leigh and Stacy(1993)가 개발한 음주결과 기대척도(Alcohol Expectancy Scale, AES)를 사용하였다[27]. 본 연구에서는 김석도(2000)가 번안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것을 사용하였다[28].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23이다.

#### 3.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연령, 최종학력, 단주경험, 단주모임참여, 병식인지를 선정하였다.

###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 통계 프

로그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파악하기 위해서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분석을 수행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델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델분석을 적용하였다. 매개효과와의 유의성은 AMOS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정규분포성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와 정규성을 보여주는 왜도 및 첨도를 제시한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정규분포의 기준(왜도>2, 첨도>7의 경우 심한 비정규분포)에 의하면 적용된 모든 변수들은 왜도가 모두 2보다 작고 첨도가 모두 7보다 작으므로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요 변인들의 일변량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 모두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문항들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사용하여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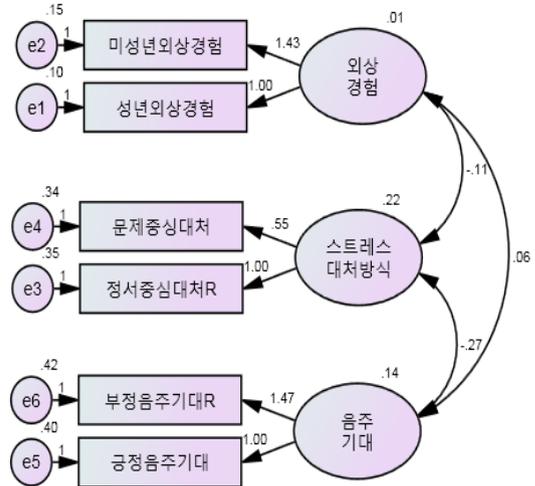
표 1. 연구변인의 정규분포성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외상경험	미성년외상경험	0.44	0.41	0.23	-1.48
	성년외상경험	0.21	0.34	1.30	0.36
스트레스 대처방식	문제중심대처	2.16	0.64	1.08	1.49
	정서중심대처	2.58	0.76	-0.12	-1.27
음주기대	긍정적 음주기대	3.83	0.51	-0.21	1.25
	부정적 음주기대	3.94	0.50	-0.44	0.99

##### 2.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지수는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값은 4.428로 낮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 $p>0.05$ ), 모형과 관측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GFI 0.993, AGFI 0.977, RMR과 RMSEA는 각각 0.008과 0.000으로 오차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각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p<0.05$ ).



Chi-square=4.428 (df=6) p=.619  
 GFI=.993 AGFI=.977  
 NFI=.987 TLI(NNFI)=1.012  
 RMR=.008 RMSEA=.000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 3. 스트레스대처의 매개효과 검증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과 음주기대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결과를 [그림 2][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chi^2=89.355$ ,  $df=31$ 이었고 모형의 적합도는 CFI=.956, TLI=.936, RMSEA=.038로 모형이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변수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낮았고( $\beta=-.328$ ,  $p<.001$ ), 스트레스대처방식이 높을수록 음주기대가 낮았으며( $\beta=-.532$ ,  $p<.001$ ), 외상경험이 높을수록 음주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408$ ,  $p<.001$ ). 통계변수 중에서는 연령( $\beta=.153$ ,  $p<.01$ )과 단주경험( $\beta=.156$ ,  $p<.05$ )이 음주기대와 영향 관계가 있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음주에 대한 기대가 높고, 단주경험이 많을수록 음주기대가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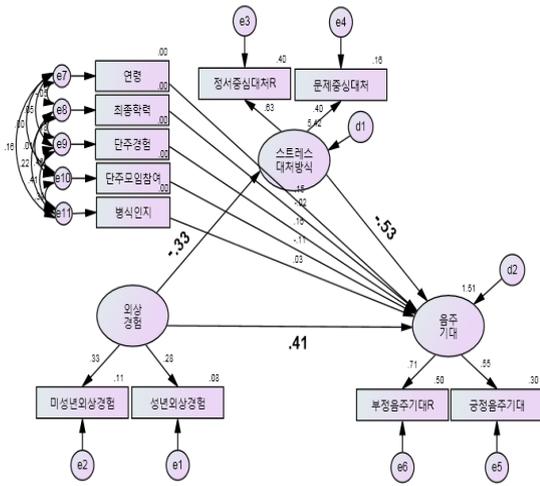


그림 2.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표 2. 구조모형 분석결과

(n=220)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S.E.	C.R.
외상경험	→ 스트레스 대처방식	-0.328	-3.625	0.723	-5.014***
스트레스 대처방식	→ 음주기대	-0.532	-0.461	0.131	-3.533***
외상경험	→ 음주기대	0.408	1.766	0.394	4.484 ***
연령	→ 음주기대	0.153	0.007	0.003	2.689 **
최종학력	→ 음주기대	-0.015	-0.007	0.025	-0.274
단주경험	→ 음주기대	0.156	-0.130	0.055	2.384*
단주모임 참여	→ 음주기대	-0.112	-0.101	0.058	-1.745
병식인지	→ 음주기대	0.025	0.024	0.060	0.399

\* p<.05 \*\* p<.01 \*\*\* p<.001  
 $\chi^2=89.355$ ,  $df=31$ ,  $CFI=.956$ ,  $TLI=.936$ ,  $RMSEA=.038$

매개모형 분석의 핵심인 스트레스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유의성, 즉, 외상경험이 스트레스대처방식을 거쳐 음주기대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를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를 아래 [표 3]에서 제시하였다. 간접효과 크기는 .174이고,  $p=.001$ 로 나타나 유의도는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외상경험과 음주기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표 3. 효과분해 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외상 경험 → 음주 기대	0.408***	0.174**	0.582***

\* p<.05, \*\* p<.01, \*\*\* p<.001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른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 최종학력, 단주경험, 단주모임참여, 병식인지가 통제된 상황에서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이 음주기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스트레스대처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변수의 경로는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대처방식이 낮았고, 스트레스대처방식이 낮을수록 음주기대가 낮았으며 외상경험이 높을수록 음주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음주에 대한 기대가 높고, 단주경험이 많을수록 음주기대가 낮았다. 스트레스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외상경험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거쳐 음주기대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외상경험과 음주기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알코올중독자들이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 음주기대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트레스대처방식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의미하고, 특히 스트레스대처방식을 외상경험과 연관 지어 알코올중독자들이 스트레스대처방식이 필요한 상황을 파악해 재발을 예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고 있는데, 알코올중독자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식이 부족하여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가지게 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많이 음주하게 된다[4]는 연구결과와 외상을 경험하고 난 이후 외상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하는가 즉,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라 외상경험 이후의 결과가

달라진다[2][12-14][34][36][37]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외상경험을 한 알코올중독자들에게 효과적인 회복의 개입을 하기 위해 스트레스대처방식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접근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스트레스대처방식이 알코올중독자의 음주기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외상경험과 음주기대, 스트레스대처방식에 대해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연구결과로서 알코올중독자의 음주기대를 낮추고 재발을 예방함에 있어 스트레스대처방식을 활용한 실천적 개입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외상경험을 한 알코올중독자의 음주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대처방식의 향상을 위한 논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외상경험이 있는 알코올중독자의 음주기대가 높음을 인식하여 스트레스대처방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개입과정 즉, 재발예방 개입에서 외상경험과 관련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점검하고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해 스트레스대처방식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취미활동의 개별 일상생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개별상담을 실시한다. 둘째, 알코올중독자들의 음주기대를 낮춰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상경험에 대한 개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알코올중독자들은 외상경험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9] 알코올중독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상경험에 대한 개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아동기 또는 성인기의 신체적, 성적학대, 파도림, 유기, 방임 등의 경험이 개별상담 또는 집단 상담에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개입해야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후속연구에서는 외상경험과 관련된 알코올중독자들의 음주기대에 직·간접적인 매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대처방식이 외상경험을 한 알코올중독자의 음주기대에 직·간접적인 매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외상경험과 관련된 스트레스대처방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참고 문헌

- [1] 김승현, *알코올 의존자를 위한 대처기술프로그램의 효과*,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2] 윤명숙, 이준석, 지홍, 김성혜, “알코올중독자의 성장기 가정폭력 외상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우울, 재발위험성의 매개효과검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0권, 제3호, pp.87-115, 2012.
- [3] V. Santhakumar, M. Wallner, and T. S. Otis, “Ethand Acts Directly on Extra-synaptic Subtypes of GABA Receptors to Increase Tonic Inhibition,” *J. of Alcohol*, Vol.41, pp.211-221, 2007.
- [4] 하창순,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우울이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5] 이지현, 최홍일, “대학생의 음주에 대한 기대가 문제 음주 경험에 미치는 영향: 음주거절 효능감과 폭음을 매개로”,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4호, pp.229-246, 2010.
- [6] 서경현, 김보연, “대처 음주의 개념과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6권, 제4호, pp.815-825, 2011.
- [7] 서경현, 양승애, “대학생 스트레스원에 대한 대처방식으로서 음주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11호, pp.331-352, 2011.
- [8] K. Graham, S. Bernards, R. Knibbe, S. Kairouz, S. Kuntsche, S. C. Wilsnack, T. K. Greenfield, and G. Gmel, “Alcohol-related Negative Consequences Among Drinkers Around the World,” *J. of Addiction*, Vol.106, pp.1391-1405,

- 2011.
- [9] 윤명숙, 박은아, “사회복지사의 외상경험과 음주 행위 관계에 미치는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교육, 제18권, pp.109-130, 2012.
- [10] 이수림, “외상 유형이 외상 후 성장 및 지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19권, 제3호, pp.319-341, 2013.
- [11] 윤명숙, 박은아,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외상후 성장 관련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2권, pp.61-89, 2011.
- [12] 이옥정,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13] 박숙형, 아동학대 경험과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14] 장수미, 김정윤, “여성 알코올중독자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제10권, 제2호, pp.63-74, 2009.
- [15] V. R. LeBlanc, C. Regehr, R. B. Jelley, and I. Barath,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Styles, Performance, and Responses to Stressful Scenarion Inpolice Recruits,” J. of Stress Management, Vol.15, No.1, pp.76-93, 2008.
- [16] 김고은,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삶의 의미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17] B. A. van der Kolk, S. Roth, D. Pelcovitz, S. Sunday, and J. Spinazzola, “Disorders of Extreme Stress: The Empirical Foundation of a Complex Adaptation to Trauma,” J. of Traumatic Stress, Vol.15, No.5, pp.389-399, 2005.
- [18] 조선덕, 박제범, “소방공무원 직무스트레스와 음주사용 장애와의 관련성”,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2권, 제1호, pp.133-140, 2012.
- [19] 현진희, 김희국, “공무원의 구제역 외상 경험에 따른 음주 특성에 관한 연구”, 알코올과학회지, 제13권, 제2호, pp.41-53, 2012.
- [20] 이희정, 윤명숙, “직장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음주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신보건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Vol.2014, 2014.
- [21] 우재희, 2012, 신체적, 성적학대 외상경험이 있는 여성알코올중독자의 재발위험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2] 김대수, “직장인의 음주기대와 음주행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제14권, 제2호, pp.81-95, 2013.
- [23] 김민경,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음주, 음주기대와 문제음주에 대한 연구: 자존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아동복지연구, 제10권, 제3호, pp.61-80, 2012.
- [24] 박경, 자기효능증진 절주프로그램이 음주여대생의 음주관련 지식, 음주거절 자기효능, 음주결과기대 및 문제음주행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25] L. G. McKee, M. O. Bonn-Miller, and R. H. Moos, “Depressive Symptoms, Friend and Partner Relationship,” J. of Alcohol and Drugs, Vol.72, pp.141-150, 2011.
- [26] 김연, 아동기 애착 및 피학대 경험과 대학생의 경계선 성격성향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27] 김은화, 성인기 애착의 불안-회피 차원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검증,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28] 유재두, “외상 경험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대처 형태와 PTSD와의 관계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38권, pp.183-203, 2013.
- [29] L. G. McKee, M. O. Bonn-Miller, and R. H. Moos, “Depressive Symptoms, Friend and Partner Relationship,” J. of Alcohol and Drugs, Vol.72, pp.141-150, 2011.
- [30] 양경미,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

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31] 윤명숙, 박은아, “사회복지사의 외상경험과 음주 행위 관계에 미치는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교육, 제18권, pp.109-130, 2012.
- [32] 최승미, 김영재, 권정혜, “인지적, 문제해결적 행동 대처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제13권, 제2호, pp.307-328, 2013.
- [33] 윤명숙, 이재경, “비행청소년의 외상경험과 음주 행동의 관계에 미치는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제16권, 제1호, pp.155-180, 2014.
- [34] N. L. Howells and A. Rosenbaum, "Effects of Perpetrator and Victim Gender on Negative Outcomes of Family Violence," J. of Family Violence, Vol.23, pp.203-209, 2008.
- [35] R. S. Lazarus and S. Folkman, *Coping and adaptation*, In W. D. Gentry (Eds.). The handbook of behavioral medicine, New York : Guilford, 1984.
- [36] 김진서, 군 병사의 외상경험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군 생활 스트레스 대처,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37] 안무옥, 청소년의 외상경험, 정서조절, 대처방식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38] 신성원, “경찰관의 조직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비교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9호, pp.211-216, 2012.

저 자 소 개

우 재 희(Jea-Hee Woo)

정희원



• 2012년 2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임상사회복지실천, 정신보건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알코올중독문제, 외상경험과 재활